

대학생의 개인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현경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이일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 개인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개인 창의성은 유창성, 독창성, 도전성, 융통성, 논리성, 개방성으로 구성되었다. 전문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265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창의성의 독창성, 도전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창성, 융통성, 논리성, 개방성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창업에서의 개인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창업의지에 대한 개인 창의성의 영향요인에 대해 연구를 하였으며, 둘째, 개인 창의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개인 창의성의 특성별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개인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실습형의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창의성,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논리성, 도전성, 개방성, 자기효능감, 창업의지

1. 서론

창의성을 우리 경제의 핵심가치로 하여 창조경제의 구현이 필요하다(Kim, 2013). 창의성 기반의 창업과 혁신을 통한 기업의 활동으로 가치와 고용의 창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국가 경제는 성장 할 것이다(Park & Kang, 2010). 창의성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현실화하기 전까지 전까지의 단계이며, 이후 단계를 혁신이라 할 수 있다(Lee & Kang, 2003).

Scott & Bruce(1994)는 혁신 행동의 출발점을 창의성으로 인식하면서, 그 구체적 행동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제조공정 또는 제품 아이디어를 찾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자극하고 증진시키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찾아내고 확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스케줄을 잡는 등의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자가 창의성을 혁신의 기초적 조건 혹은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Amabile(1996)은 개인 창의성과 혁신을 연계하여 창의성이 개인의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Weisberg(1986, 2003)는 창의적 사고란 단순히 비범한 결과를 생산한 평범한 사고라고 하였다. 이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과정 자체가 아니

라 그 과정의 결과에 관한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창의적 산물의 영향력은 때때로 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이 일어나는 과정은 매우 평범할 수 있다.

Newell & Simon(1972), Newell, et al.(1962)은 창의적 사고는 기본적으로 평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련된 사고와 같다고 제안했다. 창의적 사고를 이해하려면 문제 해결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평범한 사고를 고려해야 한다(Weisberg, 1986, 2003; Perkins, 1981).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행동 유형이나 보다 높은 성과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Kim & Lee, 2014).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특성은 창업프로세스에서 수없이 부딪치는 역경들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이 된다(Shane, et al. 2003). 창업을 다루는 학문 분야에서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를 예측하는 주목할 만한 변수이며(Krueger, et al. 2000), 창업의지가 창업 행동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의 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설명변수이다(Boyd & Vozikis, 1994).

국내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창의성이 포함되어 있는데(Cho, et al. 2008), 창의성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Kim & Park, 2015). 창업에서의 창의성에

* 주저자, 중앙대학교 박사과정pshope@hanmail.net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교수 lih2114@cau.ac.kr

투고일: 2016-05-15 · 수정일: 2016-06-21 · 게재확정일: 2016-06-26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창의성이 창업의지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그동안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던 개인 창의성을 유창성, 독창성, 도전성, 융통성, 논리성, 개방성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둘째,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2.1 창의성

창의성은 개념 정립에 있어 창의성 주체의 특성과 결과물, 과정, 평가의 주체 등이 다양하게 함께 고려된 다원적 접근이 필요하다(Runco & Pritzer, 1999). 다양한 개념적 정의 속에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는 ‘새롭고(Novel, Original, Unexpected) 유용한(Appropriate, Useful, Adaptive Concerning Task Constraint) 것을 생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창의성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누적되고 발달된 지식과 경험(Sternberg & Lubart, 1991), 내·외부적으로 개인의 욕망과 인지를 자극하는 동기, 확산적 사고와 정교화된 수렴과정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의 성향과 인지적 능력을 내재된 창의성 실체를 드러내는 핵심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Choi, 2013).

Guilford(1967)는 창의성에 대한 하위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문제에 대한 민감성, 사고의 유창성, 사고의 융통성, 사고의 독창성, 사고의 정교성의 다섯 가지 요인을 창의인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지적 특성으로 확인하였다. 첫째, 문제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은 기존 체계 내에서 문제를 찾아내어 평가하는 능력이다. 둘째, 사고의 유창성(Fuency of Thinking)은 사고의 풍부함과 관련된 양적인 측면이다. 셋째, 사고의 융통성(Flexibility of Thinking)은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해내는 것이다. 넷째, 독창성(Originality)은 주요 반응들의 발생 빈도수가 통계적으로 드문 반응을 산출하는 능력이다. 다섯째, 정교성(Elaboration)은 더 나은 검증과 분석을 위해 문제를 세분화하여 전개 시키거나 문제에 포함된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능력이다. 이와 같은 5가지 요소는 발산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수렴 사고)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창의성의 특성을 발산적 사고로 정의 내릴 경우 사고의 유창성, 사고의 융통성, 사고의 독창성은 창조적 사고의 제 요인에 포함되나 민감성과 정교성은 그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문제에 대한 민감성은 문제해결 능력에 포함될 수 있고, 사고의 정교성은 그 성질상 확산적 사고라기보다는 오히려 수렴적인 사고로서 문제해결 과정상 검증기에 작용하는 인지 능력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Jang, 2003).

이 중 창의성의 첫 출발은 유창성(Guilford, 1950; 1967)이며, 창의적 사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창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사고를 산출하는 데 있다.

Amabile(1983)은 분야와 관련된 기술, 창의성과 관련된 기술, 과업 동기를 창의성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인으로 보고 있다. 분야와 관련된 기술은 주어진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본 토대라 할 수 있다. 이 요인에는 해당 분야의 지식, 기술, 재능 등이 포함된다. 창의성과 관련된 기술은 인지적 유형을 뜻한다. 말하자면 새로운 인지적 경로와 작업 유형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발견적 학습을 할 수 있느냐가 창의성과 관련된 기술을 결정한다. 과업동기란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도록 결심하게 만드는 동기와 관련된 변인들을 말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기 다른 수준에서 움직여 창의성을 발휘하게 만든다.

Sternberg & Lubart(1995)와 Rubenson & Runco(1994)는 경제 원리에 기초한 창의적 사고의 분석을 제안했다. 그 원리는 창의적 사고자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고 가정한다. 싸게 사는 것은 창의적 사고자가 인기는 없지만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창의적인 사람의 끈기와 그 새로운 아이디어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그 아이디어는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창의적 사고자는 그것을 비싸게 팔 것이다. 즉, 그는 지금 인기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작업을 포기하고, 지금 인기 없는 어떤 아이디어를 향해 이동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경제적 비유를 더 가지고 나아가 스티븐버그와 루바트는 창의적 생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자원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측정 항목은 개인 창의성에 관한 자기평가방식의 객관성, 정확성, 스스로 평가한 점수들과 실제 창의적 아이디어와의 유의미한 관계성, 경제성, 유용성, 채점자의 주관성 배제(Hong, 2002), 결과에 있어 타 준거 검사들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Kim(1999)의 연구 등에 근거하여 창의적 성향과 사고능력을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 Hah(2000), Jeong & Park(2002), Lee et al.(2005), Kang & choe(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개념적 정의에 부합되는 항목으로 재구성 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확산적 사고와 관련된 독창성, 융통성, 유창성, 논리성 등의 사고능력, 도전성, 개방성과 같은 개인의 성향은 창의적인 과업수행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관여한다고 하였다(Choi, 2013).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것에 관해서는 더 많은 연구들이 창의적 사고, 정서와의 상호 작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Ayman & Nolley, 1992), 특히 독창성, 융통성, 유창성, 논리성 등 확산적 사고와 관련된 인지능력은 문제발견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한, 지적인 특성 뿐 아니라 적극적이며, 동기 부여가 충실히 잘된 정서적 특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Dillon, 1982).

이에 개인 창의성 요인들 중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논리성과 같은 사고능력요인과 개방성, 도전성의 성향요인을 창의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즉, 창의성의 하위 요소로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논리성, 도전성, 개방성을 사용하였다(Torrence, 1965; Guilford, 1950; 1967; 1968; Finke, et al. 1992; Song & Kim, 1999; Lingermann, 1982; Amabile, 1988; 1989; 1996; Choi, 2013).

2.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동기, 인지자원, 행동과정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다(Bandura, 1993).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제에 대한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는 명확한 예측변수로서,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효능감의 차이에 따라 더 뛰어난 성과와 그렇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주는 변수이다(An, 2016).

높은 자기효능감과 낮은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자기효능감의 영향

구분	높은 자기효능감	낮은 자기효능감
단기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쓰는 노력을 증가시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노력을 감소시키며 과업을 포기함 갈등수준이 증가함
장기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경험과 행동을 수반하며 자기발전 도모 과업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인식 실패의 원인을 역량의 부족에서 찾을 도전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목표에 주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업 도중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그 일을 기피하게 됨 과업에 스트레스를 느끼며 즐거움을 인식하지 못함 열등의식에 사로잡힘

출처 : An(2016), 창업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자기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재정리

자기효능감은 대상이나 범위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세분화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기술적 자기효능감, 교사 자기효능감, 집단 효능감을 들 수 있다(Lim, 2012).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특정 업무에서 높은 의욕과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투자하고, 장애를 딛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여 더 나은 계획과 전략을 개발하며, 부정적인 피드백을 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창업이라는 과정과 환경이 매우 모호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은 창업 프로세스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Shane, et al. 2003).

2.3 창업의지

창업은 하나의 조직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Gartner, et al. 1994), 창업의지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Veciana et al. 2005).

창업의지는 창업을 수행하는 행동을 더 잘 설명하거나 더 잘 예측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창업이 기회를 강조하는 생각의 방식이고, 기회를 발굴하는 프로세스는 명백하게

개인의 의지나 의도를 수반하기 때문이다(Krueger, et al.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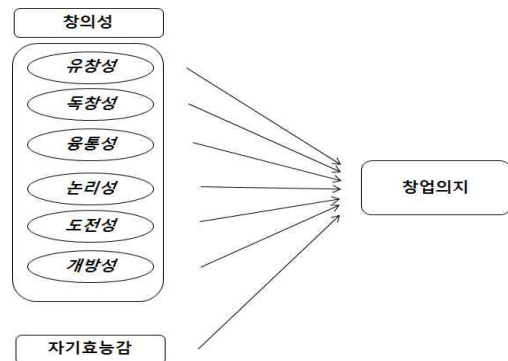
즉, 오랜 시간 창업이 발전되어지는 과정(Gartner, et al. 1994)에서 파생되는 결과는 초기 창업의지를 반영하며, 창업의지가 창업 초기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Bird, 1988).

창업을 위한 여러 역량들은 팀워크 등의 학습활동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어 창업의지에 대한 창업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창업은 창업의지가 있고 창업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20~30대 전문교육을 받은 혁신적인 사람들에게서 많이 성취된다.

III.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창업가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창업가 특성은 개인 창의성, 자기효능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 창의성은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논리성, 도전성, 개방성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모형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설정

3.2.1 창의성과 창업의지와 의 관계

Kim & Park(2015)은 대학교육에서 일상적 창의성이 기업가 정신, 창업의지 및 창업탐색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일상적 창의성인 독창적 유연성, 대안적 해결력, 모험적 자유추구, 이타적 자아확신, 관계적 개방성, 개성적 독립성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 Yang(2014)은 벤처전문대학원생, 창업대학원생, 소상공인창업교육을 받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가 특성인 성취성향, 혁신성향, 친취성향, 위험감수성향, 창의성향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고, 창의성향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반면, Joun(2014)은 IT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술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의 기술력, 창의력, 창업지원제도, 독립심, 자아실현, 취업의 대안,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고, 창의력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개인 창의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개인 창의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유창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독창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융통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4: 논리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5: 도전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6: 개방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와의 관계

창업을 다루는 학문 분야에서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를 예측하는 주목할 만한 변수로 입증되어 왔다(Krueger, et al. 2000).

자기효능감을 창업의지의 정도를 결정하는 동시에 그러한 창업의지가 창업 행동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의 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설명변수라고 정의했다(Boyd & Vozikis, 1994).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창업의 상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도전과 위험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며,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므로, 창업에 대한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Krueger & Brazeal, 1994).

Cho & Kim(2014)은 대학생의 창업가 특성을 성취욕구, 위험 선호 및 자기효능감으로 분류하고, 창업가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사이에서 창업교육 정도가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연구하여, 자기 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창업교육이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Kim & Lee(2014)은 공기업 직원의 자기효능감, 창업동기,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공기업에서 직원들의 자기효능감은 창업동기를 매개로 하여 창업의지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Yook & Jeon(2014)은 창업의지 결정 요인으로서 개인특성을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자기효능감으로 구분하여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Lee(2009)는 창업의지 결정요인으로서 경력지향성, 자기효능감, 환경적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Yoon(2004)은 경영학 전공의 대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창업의지 결정요인으로서 개인특성요인과 환경요인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개인특성요인을 경력지향성과 자기유능성으로 분류하여, 자기유능성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연구방법

4.1 조작적 정의

개인 창의성은 연구된 영역과 관점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정의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구체화된 형상인 창의적 결과물로 혹은 창의성 발현 과정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융통성, 독창성, 유창성, 정교성, 개방성, 도전정신, 모험정신, 몰입성과 같은 주체의 다른 능력이나 성향적 특성을 통해 조작화시켜 설명하고 있다(Guilford, 1950; 1967).

본 연구에서는 개인 창의성을 Guilford(1950; 1968)연구, Amabile(1988), Csikszentmihalyi(1996)를 비롯한 다원적 관점(Confluence)의 정의를 바탕으로 ‘특정 목표를 위해 독창적이고 유용한 산출물 생성을 가능하게 하고, 그 산출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 속에 내재된 능력과 성향’으로 정의하며 사고능력요인과 성향요인으로 구분하여, 사고능력요인은 영역과 관련하여 축적된 경험 지식적 능력 요인으로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논리성을 포함하고, 성향요인은 도전성, 개방성이 포함한다(Choi, 2013).

개인 창의성을 창의적 산출물 생성과 그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의 성향 특성(Sternberg & Lubart, 1991)으로, 유창성을 다량의 새로운 아이디어 생산, 독창성을 일상적으로 남과 다른 관점 유지, 융통성을 다른 개념 통합 원활히 연결, 논리성을 체계적인 사고와 표현 및 구성능력, 도전성을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감과 도전, 개방성을 다른 생각 및 체계에 대한 수용으로 정의한다. 자기효능감을 주어진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동기, 인지자원, 행동과정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한다(Bandura, 1993). 창업의지를 잠재적 창업가가 미래에 자발적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지 또는 창업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 의사의 정도로 정의한다(Ajzen 1991).

4.2 측정문항

개인 창의성의 측정을 위해 유창성 3문항, 독창성 4문항, 융통성 3문항, 논리성 3문항, 도전성 4문항, 개방성 3문항을 사용하였고(Torrence, 1965; Guilford, 1950; 1967; 1968; Sternberg & Lubart, 1999; Finke, et al. 1992; Song & Kim, 1999; Lingermann, 1982; Amabile, 1988; 1989; 1996; Choi, 2013),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기효능감의 측정을 위해 7문항을 사용하였으며(Bandura, 1993),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창업의지의 측정을 위해 6문항을 사용하였으며(Krueger, et al. 2000),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3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개인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설문은 2015년 6월 1일 부터 2015년 6월 14일 까지 2주 동안 실시되었으며, 설문 대상은 수도권 소재 대학의 창업강좌 수강생으로, 최종 265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중심으로 기초 통계량을 살펴보았다. 성별은 남자 57.4%, 여자 42.6%, 학년은 1학년 30.6%, 2학년 69.4%, 계열은 인문사회계열 20.8%, 이공계열 53.2%, 예체능계열 17.0%로 나타났다.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별	남	152	57.4
	여	113	42.6
학년	1학년	81	30.6
	2학년	184	69.4
전공	인문사회계열	55	20.8
	이공계열	141	53.2
	예체능계열	45	17.0
	기타	24	9.1

4.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주목적인 개인 창의성과 창업의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LS 2.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V. 실증분석

5.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이용한다. 수렴타당성은 구성개념에 대한 복합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등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복합신뢰도는 측정변수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0.7 이상이 평가기준이고, 평균분산추출은 구성개념에 대하여 측정변수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0.5 이상이 평가기준이다. 한편, 판별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평균분산추출(AVE) 제공된 값이 잠재변수간 상관관계수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 3> 잠재변수에 대한 요인부하량, t-값 및 신뢰성 지수

잠재변수	측정항목	요인 부하량	t-값	Composite Reliability	Cronbach α	AVE
유창성	유창성1	0.902	67.451	0.908	0.850	0.767
	유창성2	0.868	35.918			
	유창성3	0.856	31.913			

독창성	독창성1	0.824	25.307	0.859	0.781	0.605
	독창성2	0.814	19.274			
	독창성3	0.691	13.660			
	독창성4	0.774	23.807			
융통성	융통성1	0.869	11.215	0.892	0.818	0.733
	융통성2	0.861	9.780			
	융통성3	0.838	11.561			
논리성	논리성1	0.829	24.550	0.850	0.732	0.655
	논리성2	0.868	31.692			
	논리성3	0.724	14.470			
도전성	도전성1	0.750	19.453	0.881	0.819	0.650
	도전성2	0.825	24.665			
	도전성3	0.865	32.316			
	도전성4	0.779	17.595			
개방성	개방성1	0.754	11.486	0.806	0.641	0.582
	개방성2	0.836	26.465			
	개방성3	0.702	10.525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1	0.817	33.360	0.924	0.905	0.656
	자기효능감2	0.889	47.908			
	자기효능감3	0.836	34.373			
	자기효능감4	0.779	27.042			
	자기효능감5	0.785	20.172			
	자기효능감6	0.810	10.664			
	자기효능감7	0.744	32.813			
창업의지	창업의지1	0.904	77.955	0.949	0.935	0.756
	창업의지2	0.786	18.416			
	창업의지3	0.865	36.473			
	창업의지4	0.842	25.042			
	창업의지5	0.928	92.245			
	창업의지6	0.884	48.772			

<표 3>와 같이 측정모형에서 각 차원의 AVE가 0.5 이상이고,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0.5~0.95 사이의 값이며(0.7 이상이 바람직함), 요인부하량의 t-값들이 1.965(또는 2.0) 이상으로서 유의하기 때문에(유의수준 0.05, t-값/CR(Critical Ratio) > 1.965, p<0.05)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ornell & Larcker, 1981). t-값은 Bootstrapping(표본 수 500)을 수행하여 나온 결과이다.

<표 4>는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행렬을 나타낸다. <표 4>에서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행렬에서 평균분산추출(AVE) 제공된 값이 잠재변수간 상관관계수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구조모형의 적합도

구분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논리성	도전성	개방성	자기효능감	창업의지
유창성	0.876							
독창성	0.706	0.778						
융통성	0.781	0.673	0.856					
논리성	0.620	0.591	0.564	0.809				
도전성	0.660	0.687	0.660	0.648	0.806			
개방성	0.464	0.431	0.476	0.415	0.530	0.763		
자기효능감	0.528	0.509	0.545	0.428	0.548	0.348	0.810	
창업의지	0.460	0.529	0.495	0.436	0.581	0.358	0.777	0.869

주: 대각선에 제시되어 있는 값은 AVE의 제공된

5.2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5.2.1 구조모형의 적합도 및 설명력

PLS는 내생변수의 설명력 최대화, 즉 분산설명력 최대화 또는 구조오차 최소화가 목적이며 AMOS나 LISREL 등을 사용한 공분산구조모형에서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들이 사용되지 않는다(Chin, 1998; Vinzi et al. 2010). 대신에 <표 6>과 같이 다음 세 가지를 종합하여 예측적합도와 전반적 적합도를 판단하게 된다(Chin, 1998; Hulland, 1999).

첫째, 내생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R²값을 예측적합도 지수로 사용하며, 상(.26 이상), 중(.13~.26), 하(.02~.13)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내생변수의 R²값을 살펴보면 창업의지 .642로 매우 높게 나타나 구조모형의 적합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내생변수의 중복성(Redundancy)값을 예측적합도 지수로 사용하며, 이 값이 0보다 크면 예측적합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창업의지 .137으로 나타나 예측적합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구조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는 모든 내생변수의 R²의 평균과 각 차원들의 공통성(Communality)평균을 곱한 값의 제곱근으로 산출하며, 상(.36이상), 중(.25~.36), 하(.10~.25)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적합도(Goodness-of-Fit Index)는 .662로 나타나 GoF의 평가기준 .36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모형이 좋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구조모형의 적합도

	R2	중복성	공통성
유창성			.767
독창성			.605
융통성			.733
논리성			.655
도전성			.650
개방성			.582
자기효능감			.656
창업의지	.648	.012	.756
평균	.648		.676
전반적적합도	.662		

5.2.2 가설검증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토대로 구조모형의 각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재표본(Bootstrap Resampling)절차를 수행하여 각 연구가설의 검정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재표본 기법은 표본자료로부터 복원추출에 의해 동일한 분포를 갖는 추정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PLS 경로모형에서 주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Cotterman & Senn, 1992).

PLS Algorithm을 통해 나온 표준화된 경로계수들과 PLS Bootstrapping(표본 수 500)을 통해 나온 경로계수의 t-값 및 유의성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6>에 요약하였다.

<표 6> 가설검증 결과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검증결과
가설1-1	유창성→창업의지	-.131	.072	1.826	기각
가설1-2	독창성→창업의지	.133	.069	1.921	채택
가설1-3	융통성→창업의지	.0002	.062	0.036	기각
가설1-4	논리성→창업의지	.026	.062	0.433	기각
가설1-5	도전성→창업의지	.186	.057	3.245	채택
가설1-6	개방성→창업의지	.023	.047	0.482	기각
가설2	자기효능감→창업의지	.655	.041	15.963	채택

방향성 가설에 대한 단측검정이기 때문에, 경로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고, 유의수준 $\alpha=.05$ 에서 $|t| > 1.645$ 이면 경로계수와 가설이 유의하다(Yu, 2010, pp. 254-256). 가설1-1~3을 검증한 결과, 독창성, 도전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창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2를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결론 및 시사점

6.1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개인특성 요인 중 개인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창업강좌를 수강한 대학생 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Smart pls 2.0을 이용하여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가설1 '개인 창의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개인 창의성 중 독창성, 도전성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창성, 융통성, 논리성, 개방성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설2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창조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창업에서의 개인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창업의지에 대한 개인 창의성의 영향요인에 대해 연구를 하였으며, 둘째, 개인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면서 개인 창의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개인 창의성의 특성 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개인 창의성 증진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려면 각 주체의 창의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좀 더 세분화 시켜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보다 높은 전략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개인 창의성과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 창의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발산적 성격을 지닌 유창성 항목이 기각됨으로써 발산적 사고 자체는 창업의지를 가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

여주었다. 이 결과는 발산적 사고를 거쳐 질적으로 우수한 독창적 사고가 산출되었을 때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 창의성 항목 중 융통성, 논리성, 개방성 항목이 기각됨으로써 개인 창의성 특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 정리해보면, 개인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창업교육은 창의성 향상에 효과적이며(Cho, 2015), 실습형태의 교육이 병행될 때 창의성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Park & Choi, 2015). 또한, 자기효능감은 반복적인 성공의 경험, 대리 경험, 언어를 통한 설득 등에 의해 형성되므로(Bandura, 1993), 이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훈련이 중요하며, 자기효능감을 염두에 두고 핵심성공요인을 구체화하여 그것을 정복하도록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6.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나 몇가지 한계점 또한 발견되었다. 한계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본 연구를 보다 진일보 시킬 수 있는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계점으로, 첫째, 본 연구에서는 표본집단을 한 대학의 창업강좌를 수강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가 있다. 창업강좌가 다른 학습내용, 과제, 교수 학습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는 본 연구결과와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Amabile(1988)은 창의성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인 중 하나로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들고 있는데 분야와 관련된 기술은 분야의 경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는 표본을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표본의 연령층을 높였을 때 연구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수의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창의성의 개념 정립과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창의성에 대한 개념 정립을 시도하였지만 창의성과 측정도구가 모호한 상태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연구는 본 연구에서 기각된 가설 중 창업의지에 유의적으로 부(-)의 영향을 준 유창성 변수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Amabile, T. M.(1988), A model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organizations, In B. M. Staw & L. L. Cummings (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0, 123-167.
 _____(1989), *Growing up creative*, Buffalo, NY: Creative Education Foundation.
 _____(1983),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New York: Springer-Verlag.
 _____(1996), *Creativity in context: Update to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Boulder, CO: Westview.
 An, S. K.(2016),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Institutional Support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Major in Entrepreneurship, Consulting Department of Entrepreneurship,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Ayman & Nolley, S(1992), Vygotsky;s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imagination and creativ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5, 77-85.
 Bandura(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In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Boyd, N. G. & Vozikis, G. S.(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63-77.
 Chin, W.(1998), *The Partial Least Squares Approach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Modern Methods for Business Research, Marcoulides, G.(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95-336.
 Cho, D. Y., Kim, H. K. & Kim, H. B.(2008), *Research core competencies required in the future Lifelong Learning Society*, Seou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Cho, J. H. & Kim, C. J.(2014), The Effects of Student's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 17(2), 109-126.
 Cho, S. Y.(2015), *The effects of Sci-Tech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science high school students' start-up intention and creativit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ngsil University.
 Choi, S. E.(2013), *The Effect of Culture and Arts based experience on Individual Creativity and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Cotterman, W. & Senn, J.(1992), *Challenges and Strategies for Research in Information Systems Development*, Chichester, John Wiley&Sons.
 Csikszentmihalyi, M.(1996),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New york: HarperCollins.
 Dillon, J. T.(1982), Creativity, intelligence, and problem finding: retrospect and prospect, In Isaksen, S.G.(Ed.), *Problem Finding, Problem Solving, and Creativity*, 130-150.
 Finke, R. A., Ward, T. B. & Smith, S. M.(1992), *Creative cogni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MA: MIT Press.
 Fornell, C. & Larcker, D.(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artner, W. B., Shaver, K. G., Gatewood, E. & Katz, J. A. (1994), Finding the entrepreneur i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5-9.
- Guilford, J. P.(1950),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 444-454.
- _____ (1950),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14, 205-208.
- _____ (1967), Creativity: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1), 3-14.
- _____ (1967), *The nature of human Intelligence*, New York: McGraw Hill.
- _____ (1968), *Creativity, intelligence and their educational implications*, CA:EDITS/Knapp.
- Hah, J. H.(2000), The development of Creative Personality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4(2), 187-210.
- Hong, S. Y.(2002), *The Study on the Validity of the Self-Reported Creativity Test*,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 Hulland, J.(1999), Use of Partial Least Squares (PLS) in Strategic Management Research: *A Review of Four Recent Studi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0(2), 195-204.
- Jang, H. G.(2003),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fluency and originality as dimensions of creativity and right-brain preference*,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wangwoon University
- Jeong, E. I & Park, Y. H.(200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veryday Creativity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17, 155-183
- Joun, H. S.(2014), *A Factors Affecting Technology start-up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ed on the IT Service Industr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Entrepreneuril Management Hanbat National University
- Kang, J. H. & Choe, I. S.(2006), Effects of Creative Problem Solving Program through Generating Produc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3), 679-701
- Kim, B. G. & Park, K. S.(2015), The Influence of Everyday Creativity o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ial Exploration Activiti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4), 57-84
- Kim, J. G. & Lee, I. H.(2014), The Impact of Service quality in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the Self-efficacy, the Achievement need and the Satisfaction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Focusing on the Entrepreneurial Education of Internet Shopping Mall,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5), 21-31
- Kim, M. R.(2013), *University of innovations for creative fus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 support*, *Economics*, Seoul: Humanities and Social Research Council
- Kim, S. H. & Lee, J. H.(2014),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e Public sector,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6), 91-99
- Kim, H. S.(199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Diagnostic Measurements of Creativit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3(4), 269-303
- Krueger, N. F. & Brazeal, D. V.(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91.
- Krueger, N. F. & Carsrud, A. L.(1993), Entrepreneurial intention: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5(4), 315-330.
- Kruege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 411-432.
- Lee, H. J.(2009), *A Comparative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Determinant Factors between Job Applicant and Young Entrepreneur*,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Soongsil University.
- Lee, M. S. & Kang, Y. S.(2003),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and Innovative Behavior; Moder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Situation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7(1), 251-272.
- Lim, S. Y.(2012), *Predictability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mprovement by Self-efficacy and Teaching Presence*, Master's Thesis, Ewha Woman University.
- Lingemann, L. S.(1982), *Assessing creativity from a diagnostic erspective: The creative attribute profile*, Unpublished 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Newell, A. & Simon, H. A.(1972), *Human problem solv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Newell, A., Shaw, C. & Simon, H. A.(1962), *The processes of creative thinking*. In H. E. Gruber, G. Terrell, & M. Wertheimer(Eds.), *Contemporary approaches to creative thinking* (pp. 153-189), New York: Pergamon.
- Park, C. & Kang, Y. R.(2010), A Comparative Study on Entrepreneurship Among Korea, China, Mongolia, and Cambodia,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2(2), 225-246.
- Park, J. Y. & Yang, H. S.I(2014),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mpleted Prefounde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2), 97-107.
- Park, J. W. & Choi, J. I.(2015), The effect of Bizcool's educational characteristics on development of Youth creativity: Focused on the High-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Resources Development* 18(3), 47-75.
- Perkins, D. N.(1981), *The mind's best work*.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ubenson, D. L. & Runco, M. A.(1994), The psychoeconomic approach to creativity. *New ideas in Psychology*, 10, 131-47.
- Runco, M. A. & Prizker, S. R.(1999), *Encyclopedia of creativity*, 1, San Diego: Academic Press.
- Scott, S. G. & Bruce, R. A.(1994), Determinants of innovative behavior: A path model of individual.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3): 580-607.
- Shane, S., Locke. E. A. & Collins, C. J.(2003), Entrepreneurial motiv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3(2), 257-279.
- Song, I. S. & Kim, H. S.(1999), An Exploratory Study of the Establishment of Concept on Creativit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3(3), 93-117.
- Sternberg R. J. & Lubart T. I.(1991), An Investment Theory of Creativity and Its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34(1).

- Sternberg, R. J. & Lubart, T. I.(1995), *Defying the crowd*. New York: Free Press.
- _____ (1999), *The concept of creativity: Perspective and Paradigms*, In R.J. Sternberg(Ed.), *Handbook of creativ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rrance, E. P.(1965), *Gifted Children in the Classroom*, In Deighton, L. C.(Ed), 1978, *The Encyclopedia of Education*, The Macmillan Co. & The Free Press.
- Veciana, J. M., Aponte, M. & Urbano, D.(2005),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A two countries comparison. *The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2), 165-182.
- Vinzi, V., Trinchera, L. & Amato, S.(2010), *PLS Path Modeling: From Foundations to Recent Developments and Open Issues for Model Assessment and Improvement*, in *Handbook of Partial Least Squares*, Vinzi, V et al.(Eds.),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 Weisberg, R. W.(1986), *Creativity: Genius and other myths*. New york. Freeman.
- _____ (2003), *Case studies of innovation. In L. Shavinina* (Ed.), *International handbook of innovation* Boston: Pergamon. 204-247.
- Yook, C. H. & Jeon I. O.(2014), Effects of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on the Intention of Entrepreneurship: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Mentoring in Korea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661-676
- Yoon, B. S.(2004),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KOREAN BUSINESS REVIEW*, 17(2), 89-110

The Study of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reativity and Self-effica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Lee, Hyun Kyoung*

Lee, Il Han**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search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creativity and self-effica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creativity was comprised of fluency, originality, flexibility, logicality, risk-taking, and openness.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survey using college students as objects and 265 copies of the questionnaires were eventually. The study result was as follows. First, originality and risk-taking of the creativity appeared to have a positive effect (+)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the other hand, fluency, flexibility, logicality and openness of the creativity appeared to have no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Secondly, self-efficacy appeared to have a positive effect (+)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academic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first, under the situation of which the studies about creativity on entrepreneurship are rather inadequate, this study is carried out with respect to influential factor of creativity in regard to entrepreneurial intention, second, obtained the result that the effect of which creativity ha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varied for each characteristic of creativity. In practise, this study implies that entrepreneurial intention can be increased through practical and systematic entrepreneurship education designed for increasing creativity and self-efficacy.

Keywords : Creativity, Fluency, Originality, Flexibility, Logicality, Risk-taking, openness,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intention

* The Doctoral Course, Chung-Ang University, pshope@hanmail.net

**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lih2114@cau.ac.kr